

## 계미년이 떠나간다.

참 암울한 한 해였다.  
고통을 넘어 절망의 연속이었다.  
2023년은 무던히도 참았던 한 해였다.  
좌절을 맛보고 통곡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해를 찾는다.  
암울한 기억을 던져버리고 새해엔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바란다.  
내일의 희망이 있기에 암울한 기억들도 벗어버릴 수 있다.  
12월 끝자락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가 애뜻한 여운을 남긴다.  
계미년에 있었던 그 모든일들을 두손으로 날려보내자.  
왜냐하면 삶이있기에 희망을 꿈 꿀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웃자 큰소리로 웃어보자 그 웃음소리에 모든것을 떨쳐버리자.  
이썬움과 후회의 눈물 속에 초조하고 불안하게 서성이기 보다는  
소중한 옛 친구를 대하듯  
담담하고 평화로운 미소로  
떠나는 한 해와 악수하자.  
글/김성용

謹賀新年 甲辰年

24

독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일보 임직원일동



# 대한민국 영토 독도하늘에 울려 퍼진 울릉·독도아리랑

1회 울릉·독도아리랑 '전국경창대회' 성황  
명창부 대상 정선아리랑 부른 서금옥 명창

대한민국 영토 독도하늘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제1회 울릉·독도아리랑 전국 경창대회 및 제2회 울릉·독도아리랑 축제'다.

대회는 지난 23일 울릉군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소중한 순간 저희 모두가 함께 모여 아리랑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나누는 제1회 울릉·독도아리랑 전국 경창대회 개최를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남 군수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담아내 전 세계에 전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행사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선보이고, 아리랑의 소리가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명창·일반·단체·학생부 4개 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1차 예선 심사는 비대면 동영상(3분 이내), 2차 본선은 명창·일반부는 현장 심사, 단체·학생부는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순위를 결정했다. 본선 심사는 김연갑 심사위원장 등 5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심사 결과 명창부 영예의 대상은 △정선아리랑을 부른 서금옥씨가 우승의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다.

△금상 김진순 △은상 이상우 △동상 김한나 △장려상 김학영·최문희 △특별상 김경희님이 차지했다.

일반부는 △금상 조여화(대구) △은상 신재희 △동상 박선영 △장려상 최경민·윤정원, △특별상 이태자·최은주씨가 받았다.

단체부 △금상 정선아리랑(박명화 등 10명) △은상 성주영·방아리랑(백기진 등 8명) △동상 영천아리랑(문숙자 등 6명) △장려상 영천아리랑(강영순 6명)이 받았다.

학생부 △금상 최정원 △은상 강효주 △동상 이예나 △장려상 권도연 △특별상 일본 동경한국학교(6년 37명), 유민아(일본), 김채아(미취학),



최이정(미취학) 어린이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일본 동경한국학교(5년 37명) 학생들은 지정곡 울릉도아리랑과 본조아리랑을 불러 민족의 소리 아리랑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울릉·독도아리랑 전국 경창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들 동경한국학교 학생들의 소리를 심사한 결과 상급 점수를 득했으나, 대회 규정에 따라 특별상으로 대채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울릉도에서 최초로 개최한 아리랑 전국대회로 민족의 삶, 애환과 희로애락을 소리로 표현한 민족의 소리 아리랑과 울릉도의 소리 울릉도 아리랑·독도 아리랑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울릉도 아리랑은 1980년대 김재조 용(울릉군

울릉읍 사동3리)이 구연한 것을 김연갑(아리랑연합회 이사장) 선생이 채록했다.

故 정은하(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회장) 명창 소리로 재현했다.

故 정은하 명창으로부터 황효숙(울릉도아리랑 전승자) 울릉도아리랑보존회 회장이 사사받아 전국 경창대회공연 등을 통해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울릉도아리랑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울릉도아리랑은 1·2·3편의 가사와 소리를 통해 과거 울릉도 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관광 섬의 가치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국토의 동단 울릉·독도에 아리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리랑의 대부 김연갑(아리랑학교 교장) 선생

이 행사에 앞서 전국 팔도아리랑, 울릉도아리랑 관련 특강으로 우리 아리랑의 의미와 정의·역사를 교육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울릉도아리랑보존회는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때 이르게 많은 눈이 내려 도로 이동에 큰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사히 성료했다. 내년 개최될 제2회 전국 울릉·독도아리랑 전국 경창대회부터는 참가자들과 주민들의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날씨가 평온한절기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만 대회장은 "울릉도는 올해로 개척 141년이다. 타 지역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문화유산을 지키고 전승해가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1회 울릉·독도아리랑 전국 경창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울릉·

독도아리랑보존회,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울릉지부, 울릉도토속민요연구보존회 등 대회 관계자들과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효숙 울릉도아리랑보존회 회장은 "제1회 울릉도·독도아리랑 전국 경창대회를 통해 울릉·독도아리랑이 팔도와 국의 등으로 널리 전파됐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울릉·독도아리랑을 통해 독도와 울릉도 섬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이해하는 등 울릉·독도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울릉아리랑보존회는 다음 대회부터는 해외 동포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 우리 아리랑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정은하 기자

## 송성열 전 달성군의원 큰 상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표창 수상 영예



제6대 달성군 의원인 송성열 전 군의원이 자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26일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수여식에는 협의회 회장 및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송 전 군의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활동을 통해 자유 평화변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전 달성군 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평화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의장 표창'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활동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국대의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등 평화변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여은 기자

## 도내 119구급차 세균 오염 없다

경북소방본부, 119구급차  
철저한 위생관리 도민이  
구급차 안심하게 이용...

경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21개 소방서의 119구급차와 구급헬기 등 총 155대의 구급이송장비에 대한 전문기관에 병원성 세균 오염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와 전문 검사기관인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이 함께 추진한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했다.

검사 목적은 다양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량과 차량 내 사용 장비의 오염 실태 점검과 이송 환자와 구급대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의 사전 예방이다.

검사는 도내 전 소방서가 보유한 구급차를 대

상으로 구급차 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장비를 총 5개의 범주에서 무작위로 1개씩 채취해 총 775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미생물 배양 후 황색포도상구균(MRSA), 바실러스세레우스 등 오염되기 쉬운 4개 병원성 세균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경북소방본부는 119구급차 병원성 세균검사 외에도 119구급차 감염 예방 관리대책에 따라 도내 전 소방기관의 감염관리 실태 점검, 위생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감염관리실 설치, 구급대원의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다수의 응급환자가 이용하는 119구급차는 2차 감염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119구급차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이 구급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대구은행 '2024 지역상생 민생금융지원' 추진

황병우 은행장, 내년1분기 중  
신속·과감하게 지원한다 밝혀



황병우 은행장이 시장 소상공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실무 업무에 착수하고 내년 1분기 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27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수준을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의 공통 프로그램과 은행별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DGB대구은행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위한 차주 및 환급금액 확대를 위한

실무 검토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별로 배분한 분담액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수혜 차주 선정 및 환급금액 산출 기준을 내년 1월 중 조속히 확정하고 2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실시하는 것이 큰 골자다.

은행연합회 기준(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 2억원 한도)을 토대로 예비 검토한 결과 약 7만5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으로 산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 차주별로 개별 적용된 대출조건 등을 검토 후 환급 대상 차주와 환급금액이 확정된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과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소·중·청 따뜻한금융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의 앞걸음을 조합했다.

소·중·청 따뜻한금융 프로젝트는 상생금융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DGB대구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보증기관 출연 확대를 통한 대출지원 및 금리 감면 확대, 중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청년CEO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비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햇살론뱅크 및 새희망홀씨대출 지원 확대, 전세자금대출 신규 금리 우대 등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 무상임대 지원,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상생금융 지원이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취약차주 청년창업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폭을 넓힌다.

DGB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 우수기관상 3년 연속 수상(2020~2022), 지역경제영향력 우수기관상 2년 연속 수상(2021~2022) 등 다년간 축적된 상생금융 추진 성과와 노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율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당행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대상 차주를 조속히 선별하고 내년 1분기 중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청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7일 경주시청 앞천홀에서 2023년도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이 열린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퇴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경주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 2028년까지 지상 2층 규모 조성 세계유산과 신라왕경 핵심 유적 체계적, 거점 공간 제공 본격화

경주 세계유산과 신라왕경 핵심 유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마련된다. 경주시는 199억원 예산을 들여 국립경주박물관 인근 터(예정) 2만8048㎡에 2028년까지 지상 2층, 1개 동 규모로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를 건립한다. 내년 상반기 타당성, 컨텐츠 기획, 건축계획 등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가 세계유산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양동마을(2010년), 한국의 서원(2019년)이 세계유산에 지정, 경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됐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대한 통합·체계적인 역사

문화 공간과 교육·체험시설은 전무하다. 센터 1층은 세계유산 홍보관, 정보안내 센터, 회의실, 휴식공간 등의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 세계유산에 대한 통합 정보와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 기능을 제공한다. 센터 2층에는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디지털 체험관이 들어간다. 체험관은 미디어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등의 영상체제를 통해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다. 시는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가 향후 온·오프 융합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관람체험 문화가 정립될 곳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간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통합적인 정보제공 센터가 부재해 아쉬웠다. 경주 세계유산과 신라왕경 핵심유적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국민 누구나 충분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점센터를 건립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제10회 경주시 건축상 대상 '금관총'

### 총 21점 응모 최종 7점 작품 선정 종합민원실 전시 시민들에게 홍보

경주시의 제10회 건축상 공모전에서 '금관총 보존전시공간&금관총고분정보센터'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건축상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 내 우수 건축물에 수여하는 상으로 2년마다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공모전은 일반건축부문 16점, 전통한옥부문 5점 등 총 21점이 응모했으며, 지난 20일 열린 건축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심의 결과 △일반부문 최우수상에 STAY 지중서원(김포음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전통한옥부문 최우수상에 헤리티지 유와(황남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우수상에 소소한옥

(사정동 단독주택), LE CIEL(석장동 근린생활시설), 담담담(하동 단독주택), 서은재(구정동 단독주택) 등 선정됐다. 시는 수상 건축물은 동판을 부착해 건축상에 당선된 건축물임을 알리고, 수상작품 패널은 경주시청 종합민원실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후 심사평을 통해 "올해는 출품작 수는 다소 적었으나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건축개념에서 수준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가 갈수록 지역에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심사위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득 주택과장은 "지역 건축사회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우수한 작품이 많이 배출돼 지역 건축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경주시청 앞천홀에서 2023년도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이 열린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퇴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경주발전 참 무던히도 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 공헌한 공무원 퇴임식 가져 주낙영 경주시장, "퇴직 후 멋진 제2인생 펼쳐가길 바란다" 격려

경주시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27일 가졌다. 퇴임식은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합창단 공연, 퇴직자 가족 영상메시지 상영, 공로패 전달 순으로 앞천홀에서 진행됐다. 주낙영 시장과 이철우 시의장도 퇴임식에 참석해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퇴직자는 △박원철 문화관광국장 △최재순 보건소장 △김창석 사적관리과장 △배경발 현곡면장 △최진열 세정과장 △이철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진영 도시공원과장 △신진욱 수도행정과장 △이태의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규대 동공원장 △이원영 에코물센터장 △윤병숙 안강읍 세정팀장 팀장 △정은하 월성동 맞춤형복지팀장 △정재환 칠평도서관팀장 △조중래 건천읍 산업팀장 △권혁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 △최창환 자원순환과 △이상락 사적관리과 청원경찰 등 18명이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소통에 힘

써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공직 내부에선 직원과의 화합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 온 공무원으로 평가받는다. 박원철 문화관광국장은 이날 퇴직자들을 대표해 "동료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비록 몸은 퇴직하더라도 경주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퇴직 후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쳐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격려했다.

# 경주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론칭 홈런

### 2023농촌진흥기관 종합평가 우수상 농업인 직원 모두 한마음 값진결과



경주시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27일 가졌다. 퇴임식은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합창단 공연, 퇴직자 가족 영상메시지 상영,

공로패 전달 순으로 앞천홀에서 진행됐다. 주낙영 시장과 이철우 시의장도 퇴임식에 참석해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퇴직자는 △박원철 문화관광국장 △최재순 보건소장 △김창석 사적관리과장 △배경발 현곡면장 △최진열 세정과장 △이철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진영 도시공원과장 △신진욱 수도행정과장 △이태의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규대 동공원장 △이원영 에코물센터장 △윤병숙 안강읍 세정팀장 팀장 △정은하 월성동 맞춤형복지팀장 △정재환 칠평도서관팀장 △조중래 건천읍 산업팀장 △권혁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 △최창환 자원순환과 △이상락 사적관리과 청원경찰 등 18명이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공직 내부에선 직원과의 화합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 온 공무원으로 평가받는다. 박원철 문화관광국장은 이날 퇴직자들을 대표해 "동료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비록 몸은 퇴직하더라도 경주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퇴직 후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쳐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격려했다.

# 경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5억원 돌파

### 출향인사 적극적 참여결과 필요한 사업 유용하게 사용

경주시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인 5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달 26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4404건, 5억 5320만원이 모였다. 시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지역 출신 출향인과 경주를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최근 지역 내 소재한 기업과 기관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관광지 등 주요지점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날 신라천년 이벤트 3000번째 당첨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4000번째 당첨자가 나왔다. 4000번째 당첨자는 익산시에 사는 장모씨로, "익산시의 자매결연도시인 경주와 지속해서 좋

은 관계가 유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경주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20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 10번째 마다 커피쿠폰을 지급하는 연말이벤트에 당첨자가 114명이었다. 당첨자 확인은 경주 고향사랑기부제 랜딩페이지(<https://gyeongjulove.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주시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조성된 기부금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제4회 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황

### 청소년합창단 마지막 무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연출

경주시는 지난 23일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대공연장)에서 제4회 경주시 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기연주회는 'I can feel the rhythm' 라는 주

제로 청소년합창단의 합창 공연, 뮤지컬 배우 정이제의 초청공연, 리틀에인무용단의 화랑무로 관객에게 음악의 즐거움과 함께 감동의 메시지를 선보였다. 마지막 무대는 청소년합창단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연출해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김동욱 지휘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 준 청소년 단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공연장에 오신 수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단원들에게도 감동적인 무대로 기억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연주회는 경주시 청소년합창단 단원들의 예술적 꿈과 끼를 펼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연말을 맞이해 온 가족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처져 문화적 감성을 충전하는 따뜻한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청소년합창단은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지역 청소년의 꿈과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2월 창단이후 활발한 활동으로 문화예술도시 경주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1월 4-11일까지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054-779-6179)으로 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포항 울진  
영덕 울릉



일자리 창출 시상금 기부

영덕군 일자리경제과는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확보한 시상금 100만 원을 관내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26일 (재)영덕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영덕군은 지난 20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3년 시군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시책과 종합시책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며 도내 유일하게 해당 2개 부문을 모두 수상한 지자체로 선정돼 시상금을 받았다.

이에 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의 팀원들은 조직이 설립된 취지에 걸맞게 해당 성과를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려는 뜻을 모아 상금의 일부를 기부기로 했다.

해당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에 전달돼 연말연시 복지 사각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성과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1일 서울 문화의집 산림문화관에서 거행된 2023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기획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국가민속문화재 301호 괴시리민속마을 할매 할배이야기'였다.

본 상은 전국 163개 수행단체와 기관 및 15개 시도 문화원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업담당자에게 수여된 기획 부문 최고상이다. 기획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가민속문화재 301호 괴시리민속마을 할매할배이야기는 500년 역사의 한옥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이 진정한 문화재임을 인식하고 그분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향후 마을 개발에 대비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조여은 기자

# 울릉사랑카드 발행 시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울릉도에서 편리하게 사용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효과

울릉군은 울릉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울릉사랑카드를 27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울릉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류형과 모바일형 불편함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랑상품권을 울릉주민다수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한다.



신청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 회원가입 후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 및 울릉농협 본점(도동)의 3개소(저동,천부남

양)에 방문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은 오는 27일 부터며 카드충전은 새해 1월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울릉사랑상품권 카드 발행은 연말소득공제 30%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 충전 시 휴일에 구애 없이 언제든 상품권을 충전·사용이 가능하며 1인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연 100만원으로, 통합한도(지류,모바일,카드)를 적용받는다.

카드형 울릉사랑상품권 장점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의 훼손 및 분실의 위험성과 부정유통 방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모바일형 상품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카드형 결제수

단을 추가하여 연초 한번 충전으로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 출시로 지역 자금 유출 방지 효과를 증대하고 비수기 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권 울릉군은 "울릉사랑카드 발행으로 편리한 사용과 울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희망한다"며 "향후 울릉사랑카드 기능을 교통카드, 음식물쓰레기 사용 기능까지 추가해 카드 한장으로 울릉도 내에서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 포항 전기차 충전 쉬워졌다

### 올들어 28여억 투입 126기 확충 신산업 지원, 미래 패러다임 선도

포항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해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로 신속하게 대전환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다양하게 확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들인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공모, 전기차 충전서비스 육성,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올 한해 28억5000만 원을 투입, 급·중·완속 충전시설 126기를 설치하며 전기충전 인프라를 다양화했다.

먼저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공모사업에 2개 과제가 선정돼 총 26억 원(국비 10, 민간투자 16)을 들여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등 54개소에 급속·중속·완속 충전기 99기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환경부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휴맥스 이브이와 타디스테크놀로지(피앤그로우 컨소시엄)가 주요 생활·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포항 이차전지 충전인프라 생태계 조성·과생활관내 충전 취약지역 충전인프라 확대' 과제에 최종 선정돼 구축 또는 운영 중이며, 충전시설은 보조사업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전문 운영·관리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2개 과제 지원 사업에 공모해

총사업비 45억 원(국비 13, 민간투자 32)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34개소에 급속·완속 충전기 128기를 구축해 충전인프라가 가동 중이다.

이어 해로동맹 협력사업의 하나인 민간 급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올해도 시행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 50%를 지원하고 시가 추가로 최대 1기당 600만 원(60kW 기준)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해 공단에서 공모·선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항자동차검사소 등 3개소에 총 4200만 원을 지원해 설치 운영 중이다.

아울러 지자체 사업인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은 73기(11kW 기준)를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보조해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을 받아 구축 및 설치 중에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신산업을 지원해 환경 복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부가적으로 약 23억 원의 미래에너지 인프라 구축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면서 "충전기 설치부터 운영·관리까지 민간 충전 사업자가 원스톱으로 지원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전기차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총 1만8930대이며, 전기 충전인프라는 초급속 등 320기, 완속 2290기로 총 2610기가 설치 구축돼 운영 중이다. 정창명 기자



## 영덕 '즐거운 밴드' 공연수익금 전액 기부

영덕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즐거운 밴드' 단원들이 정기 공연을 통해 마련한 104만 3000원을 지난 26일 이웃돕기 성금으로 창수면에 기탁했다.

즐거운 밴드는 2019년 창수면에 연습실을 마련한 이래 직장생활이나 농업경영 등과 함께 음악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를 기반으로 꾸준히 공연을 펼치고 있는 아마추어 밴드다. 특히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올해 두 번째 정

기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과 찬조금을 전액 기부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밴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최희찬 창수면장은 "음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지역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 방면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즐거운 밴드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답했다. 조여은 기자

## 울릉군 내년 본예산 2615억 역대 최대

### 1조650억원으로 도내 시부 8위

울릉군은 2024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15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22일 울릉군 의회 의결을 거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95억원(8%)이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3억원, 특별회계는 42억원이 편성됐다.

군은 국제적인 경기침체 및 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예산

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문화및관광분야 281억원 △환경분야 222억원 △사회복지분야 211억원 △교통분야 191억원 △지역개발분야 220억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14억원(12.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에 68억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64억원 △울릉섬정년 보급자리 건립사업에 50억원 △어촌뉴딜300사업(봉구미)에 48억원 등이다. 정윤환 기자

## 포항시의회, 올 의정활동 마무리

포항시의회가 지난 22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포항시의회에는한해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명의 의원 모두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과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포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시

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없이 달려왔다. 시의회는 올 한해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총 100일간의 회기동안 조례 제·개정안 133건, 예산·결산안 14건, 동·승인안 48건, 기타 156건 등 총 3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백인규의장은 "새해에도 신뢰받는 의정으로서 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창명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확장·하이테크벨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헬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창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재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시장은 28일 오후 SD빌딩 연회장에서 열리는 영천소상공인협회 회장단 아취입식에 참석한다.



탄소중립 환경부장관상 성주군, 경북도 최우수상

성주군은 탄소중립 실천 분야 환경부 평가, 경북도 평가에서 환경부장관상, 경상북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전국 103개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에서 우수사례를 접수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성주군은 온실가스 저감,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실적,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 기후변화 관련 환경 분야 사업, 탄소포인트제 등 2050 탄소중립 실천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그 결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하는 쾌적한 그린성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칠곡군-공무원노조 최초 단체협약 체결

칠곡군은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27일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노측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2년 칠곡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초 체결되어 노사 화합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근무조건 개선 △직역 후생복지 향상 △악성민원 대응과 조합원 보호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 △통합당직제 시행 △근무시간 면제제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13장 109개조로 구성되었다.

장성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신 교섭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군정 동반자로서 상생의 마음으로 조합원 복지와 권익 향상, 직원 누구나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 성주산단 매립장 국비로 해결... 업자는 어디?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 사업 마무리 청신호 주민들 "아직 매립장 가스악취로 고생한다"

성주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으로 10년이상 고질적인 문제거리로 남은 성주산단매립장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주산단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성주군이 민원을 무시하자 민원인들은 시위로 맞섰다.

매립장 준공 당시 성주군 관련부서와 고위인사는 매립장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업체를 두둔했다.

업자 봐주기식 행정은 오래동안 성주군의 골치거리로 남았다.

당시에도 본지에서 침출수 유출 등 문제를 지적했지만 성주군은 이상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가 부임하고 부터 매립장 민원 해결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로 고생한다며 성주군의 빠른 조치를 원했다.

지난 21일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성주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3.5억원을 확보했다.

성주산단 매립장은 2017년 상반기 허용매립량의 95%이상 매립된 이후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악취 민원 등 여러 문제가 발생돼 침출수 유출 등의 오염사고가 우려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성주군은 사업주가 납부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36억원으로 최종복도, 빗물차단 등의 안정화사업을 시행해 지난 6월에 1차 공사를 준공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매듭짓지 못했다.

성주군은 경북도, 환경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해 본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추가 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4년에 총사업비 47억원(국비 23.5억원, 지방비 23.5억원)을 확보하면서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사업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북도, 중앙부처(환경부, 기재부, 대구지방환경청) 및 지역 국회의원, 군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공동 대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간인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한 산단매립장에 대한 안정화사업을 철저히 시행, 마무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수출 등의 오염사고가 우려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성주군은 사업주가 납부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36억원으로 최종복도, 빗물차단 등의 안정화사업을 시행해 지난 6월에 1차 공사를 준공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매듭짓지 못했다.

성주군은 경북도, 환경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

문해 본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추가 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4년에 총사업비 47억원(국비 23.5억원, 지방비 23.5억원)을 확보하면서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사업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북도, 중앙부처(환경부, 기재부, 대구지방

환경청) 및 지역 국회의원, 군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공동 대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간인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한 산단매립장에 대한 안정화사업을 철저히 시행, 마무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 세계유산의 도시 고령 2023년 상복 제대로 터졌다

대가야축제 경북도 최우수 축제 등 50여건 수상 군정역량 우수성 입증



고령군이 2023년에는 상복이 터졌다. 축제 및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분야, 환경 및 안전 분야, 보건복지분야 등 행정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총 50건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고령군 주요 수상 내역은 고령 대가야축제는 3년 연속 경북도 지정 축제

'최우수' 및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선정돼 대가야축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 ▲시군 문화유산분야 '최우수상'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경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 ▲경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상' ▲경북도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 '대상'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지자체 환경부장관 표창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대한민국 재민응급의료 종합훈련 전국대회 '최우수상' ▲아트포·전식 예방관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기초생활보장분야 및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상' ▲경북도 에너지대상 '최우수상' ▲경북 한우 경진대회 사·군 단체 '최우수상' 등이다.

또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제21회 한국책체대상 '한국디지털단체총연합회대상' ▲적십자사회비모금 '우수 행정기관 표창' ▲제38회 서울국제관

광전 '최우수 콘텐츠상'과 '마스코트 퍼레이드상' ▲경북 사랑의 열매 유공자포상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고령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거듭한 결과, ▲경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 '장려상' ▲시군평가 '도약상' ▲사·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 '우수기관'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등의 소중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향후보다 나은 고령군정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3년의 고령군은 각 분야별 고른 수상과 외부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통해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의 꿈을 그리는 한 해였다.

2024년은 꿈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낼 것임을 예고한 고령군, '세계유산의 도시'로 새롭게 시작하는 고령의 도약을 지켜봐도 좋을 것이다. 배영백 기자

경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 성과공유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담당 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공연 ▲협의체 활동 영상 상영 ▲활동 우수사례 발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 해 동안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한 읍면동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를 통해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 데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개 읍면동별 지역 실정에 맞게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이다.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영은 기자

## 청도군, 산림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박차

'산림관광' 인프라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인구 증대에 박차

청도군은 '청도 10대 명산 숲길 정비'와 '청도 자연휴양림 운영' 그리고 '산림치유힐링센터 조성' 등 차별화된 '산림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도는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민은 물론 대구시를 비롯한 남부권 1300만 명의 배후수요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 자연속 즐거움이 있는 다양한 등산로 조성 -10대 명산 숲길 정비

등산은 체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감을 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레포츠로 정착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청도군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산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숲길에 등자, 휴먼지킴이개와 같은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에는 각북면 오산리 일원 비슬산 등산로(힐티오름길) 3.2km 구간에 도비를 포함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 친화적 숲길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매전면 장연리 흰뽕봉 등산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이용객 편의를 우선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청도자연휴양림

일상을 벗어나 추억과 휴식의 공간을 선사하는 산림휴양시설로 각북면 오산리 산56번지 일원 해발 500m 지대에 조성돼 있다.

낙엽송 및 소나무 군락지로 둘러싸여 4계절 자연이 선물하는 풍부한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숲속의 집 9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6실), 캠핑장 35면으로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캠핑센터(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천수공간 및 등산로 구성돼 있다.

2022년 6월 개장 후 현재까지 연간 6만 명(2023년)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산림휴양의 중심지이자 청도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고 배후에 위치한 비슬산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

하고자 2023년과 2024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 산책로 개설과 기존 시설 보수 등 아낌없는 투자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산림치유관광의 메카 청도

군은 산림치유힐링센터 조성을 위해 올해 기본구상용역 및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을 완료했다. 내년 전환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지자체 최초의 공공 장기체류형 치유시설로 산림치유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명품 산림치유힐링센터를 건립해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청도를 대표하는 체류형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산림관광 인프라 확대는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청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치유와 휴양의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며, "다시 찾고 싶은 숲, 힐링하고 싶은 청도를 만들기 위한 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천시, 특별교통수단 24시간 확대

영천시는 주간 운영에 오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을 내년 1월부터 매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야간 및 공휴일 운영에 대한 이용객들의 요구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12월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 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용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 1,400원이며, 5km 이상의 경우 km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한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경우 영천시이동지원센터로 이용 자격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 즉시콜 및 예약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인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천시는 현재 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해 2024년에 1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최은하 기자

# 온누리 올려퍼진 사랑기부 의성 농업도시 위상 펼쳐

## 의성군 계미년 한해 멋지게 장식 군민 행정이 모두 한마음된 결과

의성군이 계미년 한해를 멋지게 장식했다. 온누리에 올려퍼지는 사랑기부로 군민이 웃고, 농업도시의 위상을 마음껏 펼쳤다. 군민과 행정이 한마음된 결과다. 어디 이뿐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의성만의 특별한 기부로 알려진 행복금고에 이어지는 착한 행진은 풍요의 땅답다.

지금 의성은 잔치상이 차려져 내년을 기원하는 풍년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 장하다 의성농업기술센터

의성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23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촌지도분야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다.

2018년 최우수상, 2019년 대상, 2020년 최우수상, 2021년-2022년 우수상에 이어 6년 연속 수상의 쾌거다.

각 도를 대표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중앙단위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디지털농업 기술전환, 화상병 등 재해대응과 청년농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교육훈련 종합평가에 교육경영팀이 출전, 농업실용 교육, 스마트 교육, 기능기초 교육, 청년농업인 교육에 대한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이 됐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에서 스마트팜 교육과 컨설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가 6년 연속 우수한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 미래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발 더 앞서가고 의성군의 농업을 스마트·디지털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평통 의성군협의회 대통령 상

지난 26일 안동 리첼호텔에서 열린 202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수여식에서 박지혁 의성군협의회장과 김동윤 국민소통분과위원장이 의장(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표창은 2023년 도 자유민주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동에 공적이 탁월한 자문위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김하영 부의장이 전수했다.

박지혁 의성군협의회장과 김동윤 국민소통분과위원장은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의식 고취를 통해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위

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시대 정착으로 통일을 앞당기고, 평화통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진정환세대대를 위해 민주평통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 의성만의 특별한 행복금고

의성만이 가진 특별한 행복금고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단촌면 주민자치회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성만의 특별한 기부 '함께모아 행복금고' 모금사업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이어지는 착한 행진이다.

함께모아 행복금고는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으로 단촌면 지경기부금은 단촌면에 전액 배분, 단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특화사업과 긴급구호비로 소중하게 쓰인다.

김태용 회장은 "함께모아 행복금고 기부에 동참, 나눔의 기쁨을 느낀다. 기부문화 만들기에도 도움이 되 행복하다"고 전했다.

홍옥자 단촌면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지역구에 따른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동참해 준 단촌면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광교회 이웃사랑 훈훈

의성읍 성광교회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광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00만원을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 및 난방비로 꾸준히 기탁해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만원씩 성금을 전달, 현재까지 총 6000만원을 기탁, 지역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이정락 목사님과 신도, 의성읍장이 직접 취약계층 20가구를 방문, 성금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정락 목사는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으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주형 의성읍장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성광교회 목사님 및 신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나눔의 손길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금

의성군은 지난 2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의성군 복지과, 사곡면, 의성군가족센터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의성군 드림스타트, 사곡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성군가족센터에서 각각 추천한 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KBS 동행 프로그램 출연 아동 2명의 후원금 6600만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한 아동 1명의 주거비 2000만원까지 총 8600만원이 전달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아동복지·아동보호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후원을 하고 있다.

올해 의성군 내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다문화가족 등 57명의 아동에게 보육비와 의료비 및 후원금으로 총 1억 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박정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후원금이 쓰일 수 있어서 뜻깊고, 의성군내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동의 행복한 성장에 애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데 의성군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의성군정 소식 알리미 역할 특화

의성 군민들에게 주요 군정 소식을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송해 주는 '의성톡톡' 알림서비스가 군정 소식 알리미 역할을 특화하고 있다.

'의성톡톡'은 구독에 동의한 의성군민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축제, 생활정보 등 다양한 군정 소식을 주 1회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군민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 대체 발송해 주거나 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군민들도 '의성톡톡' 알림서비스 신청으로 군정 소식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의성톡톡' 알림서비스는 군민들이 누리집에서 일일이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입신고 시 '의성톡톡'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시범 발송을 시작으로 주 1회 월요일 군정 소식을 발송, 현재 신청자는 1만 2000여명에 이른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톡톡서비스 운영으로 군정 관심과 정보의 편익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군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성톡톡' 알림서비스는 의성군청 누리집(의성톡톡 알림서비스 신청), QR코드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기창 안동시장은 28일 2023년 하반기 공로연수 자-퇴직자 전별식에 참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8일 오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 연말총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새마을선비회관에서 열리는 영주시 새마을 연말평가대회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8일 오후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송군협의회 건전생활실천 순회강연회'에 참석한다.



예천군 성금 기탁 잇따라

예천군은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따뜻한 손길이 잇따라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6일 풍양면이장협의회가 성금 700만 원을 전달했으며, 27일에는 예천중앙로타리클럽(회장 이택동) 회원 10여 명이 쌀 10kg 100포(250만원 상당)를 직접 전했다.

이택동 회장은 "평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분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힘들게 보낼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쌀을 기탁 하게 됐다"며 "봉사하는 단계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지도자 농업기술명장 일동이 성금 100만 원을 예천군 12개 읍·면 체육회(회장 백남훈)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백남훈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항상 건강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안동의료원, 응급의료 A등급

경북도안동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경북도 지역응급의료기관 22개소 중 1위, 전국 234개소 중 50위를 기록했다.

안동의료원은 시설, 장비, 인력의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평가항목 중 안전관리의 적절성, 전원의 안전성, 중증응급환자진료의 적절성, 응급의료 질 관리 체계의 적절성, 이용자 편의성, 환자 만족도 조사 등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국현 원장은 "앞으로도 필수 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상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보물 지정

광해군 14년 작 왕실 발원 불상  
유씨 저고리 등 유물도 보물로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승격 지정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에서 소장해오던 불상이다.

시는 지난 2020년 경북도 유형문화유산인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하고자 정밀학술조사를 실시했다.

수년간 불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자료 구축·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온 결과 올 10월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된 후 이번에 최종 승격 지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은 수조각승 현진(玄眞)을 비롯해 응원(應元), 수연(守衍), 성인(性仁), 인균(印均)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해 1622년(광해군 14) 조성한 불상 및 복장유물이다.

복장에서 발견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가 왕실 비빈(妃嬪)이 출가하던 자수사·연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 발원한 11존의 불상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상은 그 가운데 독존의 석가여래로 자수사·연수사의 주불전에 봉안된 불상은 아니며, 별

도로 마련된 왕실 원당(願堂)에 봉안되어 원불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상은 조형적으로 삼등신의 아기 같은 비례감을 갖고, 머리가 크고 무릎이 좁으며 뺨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을 주고 있다. 동시에 다부진 체구, 진중함이 드러나는 이목구비, 왼쪽 어깨와 하반신의 옷 주름 표현 등에서

조각승 현진 유파의 양식적 특징에 원형이 되는 요소들이 파악되어 학술연구 가치가 크다.

특히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과 함께 '병자생왕비유씨명(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문서가 적힌 광해군 부인 유씨의 저고리가 발견됐다.

이는 개인을 위한 원불로 이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17세기 조선 왕실 복식의 완전

한 형태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해마다 국가유산 및 경북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지정 문화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을 국가유산 지정 및 승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길 기자

영주시 내년 본예산 1조원 첫 돌파

1조650억원으로 도내 시부 8위

영주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가 도내 시부 8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주시에 따르면 2024년도 본예산은 1조 650억 원으로 영천시(1조 481억 원), 문경시(9300억 원)를 제치고 8위로 올라섰다.

영주시는 줄곧 도내 시부에서 9위 정도의 본예산 규모를 유지해왔으나, 2022년 10위로 떨어졌다가 2023년에 9위, 2024년에는 8위로 도약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은 2022년 7962억원 보다 2688억원이 늘어난 1조 650억 원으로 2년간 도내에서 최대 증가율(33.76%)이다.

본예산 기준 1조 원이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및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국·도비 확보 노력한 결과다.

더불어 농림분야, 문화관광분야 조성을 위한 사업과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국가산단 등 미래먹거리 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61억 원(12.30%) 증가한 9684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89억 원(10.15%) 늘어난 966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영주담 준공으로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한 사업과 국가산단 승인에 따른 첨단 미래 산업도시 기반조성, 혁신 농업도시를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

주요사업으로 △영주담 레포츠타일 조성사업 20억원 △영주담 페라글라이딩 시설 조성사업 10억원 △영주담 수변 생태자원화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32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70억원 △영주시 농기계보관소 및 안전교육장 신축 65억원 등을 편성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는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해였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통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미래먹거리 사업에 투자해 '더 큰 영주'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복합커뮤니티센터·수해 극복...  
올해 예천 군정 빛낸 10대 성과

고향사랑기부금 쏘대 등 꼽혀  
"내년 더 살기 좋은 예천 건설"

예천군은 2023년 한 해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군은 올해 추진한 군정 주요성과 중 총 18건의 우수성과를 후보로 정하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군정 10대 성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운영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극복 노력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433% 초과 달성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운영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지역특화 임대형 스포츠공원 조성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개관 및 운영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마을 선정이 포함됐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와 패밀리파크 등 대규모 건축공사 완공 후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 사업들이 많은 성원을 얻었다.

또한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고향사랑기부금의 폭발적인 모금 활동 및 대규모 국제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등의 성과도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예천군-안동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호평을 받았으며, 농업대전환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쓰레기 재활용의 주민 인식을 개선하는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등이 선정돼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나타났다.

김학동 군수는 "이 성과는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동력 삼아 묵묵히 일한 결과이며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예천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청송군, 새해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

1일 오전 6시 양수발전소 상부담

청송군은 새해 1일 오전 6시부터 청송양수발전소 상부담에서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기원하는 '2024 새해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파천농수산악회가 주관하는 해맞이 행사는 새해 소망 성취를 기원하는 소원소지 작성 및 소원소지 올리기, 세시음식(떡국) 나누기, 대북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오전 7시 37~40분경 일출 후 행사장 특설 제단에서는 청송군 산악인과 군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시산제도 이어진다.

특히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사 당일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안전관리요원과 교통·주차 통제인력을 배치하고, 소방차, 구급차, 산불진화차량을 행사장에 상시 대기토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가족질병인 렙피스킨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조치와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 많은 군민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되고, 아울러 청송군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양서 장계향 연구발표회 열려

영양군 장계향연구회는 지난26일 장계향문화체육교육원 강당에서 제6회 여중군자 장계향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여중군자 장계향의 관점 : 인간·교육·실천'이란 주제로 장계향 관련 3개 단체에서 발표했다.

여중군자 장계향은 국가재난의 시기에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이웃을 살피는 한편 서예·문학그

림 등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귀감을 보여준 위대한 여성지도자로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지난 16년간의 장계향 선양사업의 성과와 7년간의 연구 실적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선양사업 및 연구방안을 설정해 꾸준히 실천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장계향연구회는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장계향 사업을 선정하여 폭넓은 연구와 장계향 선양사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권윤동 기자

안동시,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안동시가 오는 31일 옹부공원 시민의 종각에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푸른용의 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타종행사는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취태대 행진 △신년취호 퍼포먼스 △타종식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며 각계각층 50여

명의 인사들이 1개조 4~7명씩 총 11개로 편성돼, 무사 안녕을 염원하는 33번의 타종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타종 마지막 조는 타종행사장에서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되어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후 11시 45분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김형동 국회의원이 신년 취호가 쓰인 종자를 펼쳐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최준길 기자

꿈나무육성

#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플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플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 입금 후 환불 주)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

